

## 「2024년 아세안+3 HRD 포럼」 그린 디지털 전환 시대,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논의하다

- 11월 7일~8일 고용노동부,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「아세안+3 직업능력개발 포럼」 개최
- “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동 인력 역량 강화”를 주제로 논의, 국가별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정책·사례 공유

고용노동부(장관 김문수)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, 한국산업인력공단(이사장 이우영, 이하 ‘공단’)이 주관하는 「2024년 아세안+3 직업능력개발 포럼」이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 메이필드호텔(서울 강서구)에서 개최된다.

동 포럼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했다. 2015년부터는 세계은행과 공동 개최하면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.

이번 포럼에서는 ‘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동 인력 역량 강화’를 주제로 아세안 10개국\*과 중국, 일본 정책담당자, 국제기구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의를 한다.

\*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타이, 베트남, 브루나이, 라오스, 미얀마, 캄보디아

포럼 첫날인 11월 7일에는 4개의 세션\*\*별로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된다.

\*\* △미래인재를 위한 디지털 및 그린 스킬, △디지털 및 그린 역량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 강화, △평생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변혁을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, △지속 가능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 및 국가 간 협력

세계은행의 디에고 암바스(Diego Ambasz) 선임 교육 전문가는 기조연설에서 ‘디지털 및 녹색 경제를 위한 혁신적 직업능력 개발’을 주제로 산업전환 시대에 정부가 어떻게 직업능력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와 다양한 선진사례를 소개한다.

이후 각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아시아·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직업교육훈련에서의 디지털 및 친환경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및 사례들을 소개하고, 성과와 개선방안을 공유한다.

또한 지속 가능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 및 국가 간 협력 논의를 통해 향후 아세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.

대한민국은 디지털 인재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신기술 분야 맞춤형 훈련과 산업 중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 소개 및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.

포럼 둘째 날인 11월 8일에는 향후 아세안 국가별 실행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모여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. 디지털 및 친환경 관련 훈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‘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’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.

※ 방문기관: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(한국공학대학교,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)

이우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“올해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협력을 강화하겠다”라며, “이번 포럼이 아세안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HRD협력부	책임자	부 장	강민경 (032-509-1821)
		담당자	과 장	조은혜 (032-509-1827)



□ **포럼 개요**

- 일시·장소: 2024.11.7.(목)~11.8.(금) 서울 메이필드 호텔
- 주제: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동 인력 역량 강화(Empowering the Workforce for a Sustainable Future)
- 주최: 고용노동부·세계은행/ 주관: 한국산업인력공단
- 참석자: 아세안 10개국, 중국, 일본 정책 담당자(고용부·교육부), 유관 기관·학계 전문가,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80여 명
- 프로그램 구성(요약)

일자	세부 일정(안)
11.7. 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<b>개회식</b> (개회사) 고용노동부 남호재 과장 (개회사) 세계은행 Cristian Aedo 아태지역 교육부문 국장 (환영사) 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 (축사) 아세안 사무국 Kao Kim Hourn 사무총장</li> </ul>
	<p>&lt;I : 미래 인재를 위한 디지털 및 그린 스킬&gt; &lt;기조 강연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발제) 디지털 및 녹색 경제를 위한 혁신적 직업능력 개발(세계은행, Diego Ambasz)</li> </ul>
	<p>&lt;II : 디지털 및 그린 역량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강화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발제1) 업스킬링 및 리스킬링 : 친환경 및 디지털 경제의 요구 충족(중국)</li> <li>▪ (발제2) 그린 디지털 스킬 강화: 직업교육훈련 관련 국제 사례 공유(세계은행)</li> </ul>
	<p>&lt;III :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변혁을 위한 유연한 학습 경로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발제1) 디지털 도구의 활용: 마이크로 크레덴셜 및 모듈식 학습(세계은행)</li> <li>▪ (발제2) 탄력성을 위한 TVET 커리큘럼 내 디지털 및 그린 스킬 통합(라오스)</li> </ul>
	<p>&lt;IV : 지속 가능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제 및 국가간 협력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발제1) 디지털 및 그린 스킬에 맞춘 직업교육훈련 변혁을 위한 국가간 접근 방법(미정)</li> <li>▪ (발제2) ASEAN에서의 직업교육훈련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촉진(한국)</li> </ul>
11.8. 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<b>폐회식</b> (폐회사) 세계은행 제이슨 알포드(Jason Allford) 한국사무소장, 산업인력공단 김규석 능력개발이사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<b>산업시찰</b>: 한국공학대학교, 지능형교통체계협회 (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)</li> </ul>

**<1> 세계은행 디에고 암바스 선임 교육 전문가, <디지털 및 그린 경제를 위한 혁신적 직업능력 개발>**

- 디지털 및 그린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고, 이를 구축하기 위한 청년 대상 노동력 개발 이니셔티브 발표
  -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 구축, 그린 분야에서의 기업가 정신 등 청년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소개
  - 기술 습득의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디지털 도구 통합의 중요성 및 유연한 학습경로 촉진 방안 공유

**<2> 라오스 교육부 Thongsai Inthavong 부국장, <탄력성을 위한 TVET 커리큘럼 내 디지털 및 그린 스킬 통합>**

- 라오스는 디지털 전환 및 녹색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교육에 애쓰고 있음
  - 특히 재생 에너지, 지속 가능한 농업, 폐기물 관리 등과 관련된 훈련을 통해 농촌 인구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농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
  -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및 IT 기술 교육을 통해 기술 중심의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는 노력 중임